

축산업계 동향

제 1 회 육종학의 최근의 진보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 11월 10일, 한국육종학회 주최로 -

한국 육종학회(회장: 현신규)는 지난 11월 10일 (금) 무역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 1 회 육종학의 최근의 진보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움에서 서울농대 박영일 교수는 「가축육종의 최근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가축육종 기술의 발전과 문제점 및 미래의 전망과 특히 육용계와 산란계의 모계 및 부계별 육종에 관한 발표를 하여 주목을 끌었으며, 좌장으로는 한창욱 교수(충남대) 질의자로는 오봉국 교수(서울대), 설동섭 박사(농촌진흥청)가 수고 하였다.

이날 오봉국 교수는 박광의 교수(서울대)가 발표한「家畜육종의 최근의 진보」좌장을 맡기도 하였다.



〈박영일 교수〉

사료품질관리및 시설근대화 세미나 개최

- 농수산부, 사료협회 공동주최로 -

1978년 하반기 사료품질관리및 시설근대화 세미나가 11월27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역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농수산부와 한국사료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강사및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관계 법규 해설: 이영래(농수산부 사료과장)

국내부존 자원의 영양가치평가와 이용: 이현범(퓨리나 코리아)

Least Cost Formula 작성방안: 김창원(KIST)

시설 근대화에 따른 실험실 운영강화: 정진국(오진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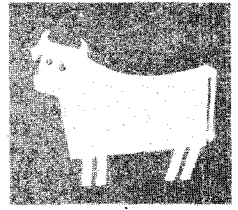
배합사료 산업 합리화방안, 사료기술연구소(가칭) 설치운영: 김성훈(중앙대학교)

한국가축번식연구회 정기총회및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축번식연구회(회장: 김영목)는 1978년도 정기총회및 추계학술발표회를 11월25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대학교 학생회관(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축산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자급하기 위하여는 가축의 증식이 필요하며 가축의 번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축의 번식생리, 인공수정 육종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때 학술발표회를 갖게된데 큰뜻이 있다고 말하고 장소와 각테일파티를 준비한 중앙대학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오전에 이재근 교수의 제16차 세계가금학회참가와, 김선환 박사의 수정란 이식



시 침출마취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귀국보고 후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제13회 보건학 세미나 개최.

- 「인수공통전염병」을 주제로 15日 열려

“인간과 동물에서 공통되는 전염병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사단법인 대한 보건협회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와 한국 수의보건학회 협찬으로 78.11.15일 13시30분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보건협회 총무부장 정문식 교수 사회로 허정보건대학원 원장의 인사, 윤패병 수의사회 회장의 축사에이어 좌장 윤패병교수로 다음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1 주제: 인간에서의 인수 공통 전염병
발표자: 카톨릭 의과대학 교수 정희영

제2 주제: 동물에서의 인수공통 전염병
발표자: 건대 축산교수 이원창

토의는 대한 보건협회 회장 권이혁 교수가 수고 하였는데, 토의자는

김경호(국립보건 연구원, 병독부장)

이창구(가축위생 연구소장)

전운성(서울대 수의대교수)

김정순(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이다.

토의 종료후 신광순 대한 보건협회 부회장은 종합 평가에서 최근 축산물의 급증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는 수의사와 人階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날로 그물량이 증가

하고 있는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를 전담하는 기구,인원, 예산등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새출발을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보사부에서 국회관계로 장관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보건국장, 모자보건국장 등 관계 국장이 참석하였다.

한국수의 보건학회

- 18일 추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개최 -

한국수의보건학회(회장: 신광순)가 주최하고 대한 수의사회가 후원하는 1978년도 추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이 지난 11월1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발표회에 이어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과장의「미국에 있어서 식란과 계육의 위생처리 현황」의 시찰보고가 있은뒤 세미나에서 동물용 항생물질의 수급(이재진:가축위생연구소 검정화학과), IBDV의 면역억제 현상및 닭질병과의 관련성(이영욱: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등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아울러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수의학 교육을 위한 수의공중 보건학」을 주제로 한 이원창(건국대축산대학)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축산업계 동향

한국동물약품협회, 학술강습회개최

— 11월 3일 무역회관에서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김길원)는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5회 동물약품학술 강습회를 11월 3일 무역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의 강습 내용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새끼돼지의 설사병: 김봉환(가축위생연구소)

도입젖소의 질병문제: 이광원(국립종축장)

미국 양계산업발전의 이모저모와 세계 가금 학회총회 및 박람회 참가 소감: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과장)

본회 안양분회 추계세미나 성료

— 질병문제 집중적으로 논의돼 —

지난 11월 4일(토) 안양지역 양계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본회 안양분회(분회장: 박성원)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양계기술 세미나가 가축위생연구소 세미나실에서 15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양계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I.B(닭 전염성기관지염)와 Adeno Virus의 질병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직 국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고있던 I.B가 연사인 김선중 박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의「I.B의 병원성과 국내 방역대책」이라는 연제를 통해 병원체가 국내에서 분리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공식발표는 되지않았음) 이영옥 박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도 그의 연제「닭에게 영향을 주는 Adeno Virus의 정체」를 통해 Adeno Virus 역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Egg Drop Syndrome(산란저하 증후군)의 만연으로 소홀히 다루어질 문제가 아님을 주지시켰다. 이어 김영환 전무(천호부화장)는「양계 기계화의 동향」이라는 연제에서 이제 한국의 양계업도 기계화의 문턱에 다달았음을 밝히고 슬라이드를 통해 쉽게 기계화 될수 있는 양계설비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 하였다.

또한 박근식 과장(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양계국의 질병방역 대책내용을 상세히 설명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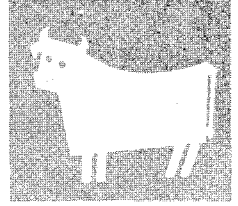
(분회장 박성원씨)

서울, 경기 양계협동조합 창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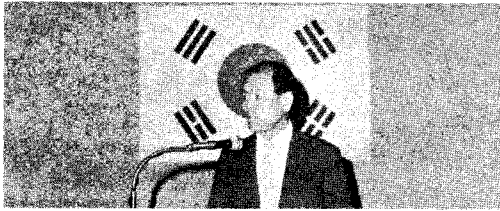
— 10월 28일 제 1차 이사회개최 —

농수산부는 지난 6월 7일 창립총회를 가졌던 서울, 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윤도진)의 창립을 인가했다.

한편 동조합은 10월 28일 제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가될 때까지의 경과보고와 금후의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하였다.



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있다.



〈조합장 윤도진씨〉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 발족

— 농수산부, 동협회를 사료조절단체로 지정 —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전동수)는 지난 10월19일 당국의 설립허가를 받아 11월3일 등기를 필함으로써 사단법인체로 정식 발족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11월20일자로 동협회를 사료조절단체로 지정하였다.

단미사료협회 어분분과회의 개최

한국단미 사료협회는 제 1차 어분분과회의를 지난 11월14일 오후 2시 부산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혁분 또는 우모분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어분공장은 스스로 자진하여 등록취소 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부산소재 고려사료와 선진사료는 피혁가공분말 성분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어분생산에만 주력키로 했다.

피혁분 분쟁의 시발과 그간의 경위

당초 김모씨가 “육골분사로 제조방법”에 따른 특허를 1976년 2월24일 출원하여 1977년 4월20일 특허공고 제303 호로 공고된바 있다. 소위 특허권자 김모씨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대풍물산(대표: 김항태)과 합작기로 하여 함께 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대풍물산과 쌍방협의하에 헤어진 후, 대전소재 인성물산(대표: 최인환)을 특허침해로 6월중 고발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이며, 인성물산은 특허무효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 소위 특허권자 김모씨는 임모씨에게 공유가입권을 주어 공유가입권자 임모씨는 경기도 포천군소재 인화기업(대표: 이화방)을 특허침해로 고발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데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건국대 축산대학

예시 260점 취득자 4년간 장학금

예시 260점 취득자 2년간 장학금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 예비고사 성적 250점 이상을 받은자에게는 대학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6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서 대학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학 당국측에서는 점차로, 확대 발전되어가는 국내 축산업계를 짊어질 우수한 축산인력의 배양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축산에 뜻이 있는 우수한 입시생의 많은 응시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축산업계 동향

농수산물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 경제기획원, 긴요물자의 관세율도 대폭인하 —

정부는 내년의 물가정책 기본방향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기로 하고 쌀, 우유등 122개의 생활필수품 및 긴요물자 가격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E. P. B)에 따르면 내년도 물가억제선은 도매10%소비자12%이나 106개 생활필수품 가격의 연간 상승율을 10%이내로 억제키위해, 생산량확대 수입개방을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늘린다는 것이다.

특히78년도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현재 수입제한품목에 묶여있는것을 자동승인품목으로 전환하고 긴요물자의 관세율도 대폭인하 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가 아니라도 쇠고기등 축산물이 현재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축산계에 대한관세율의 인하보다도 축산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장비 및 시설에 대한 관세를 무세로 하여줄 것을 업계는 원하고 있다.

수입자유품목 예시 조기실시

— 추천기간단축, 절차간소화 —

상공부는 효율적인 수출입정책을 수립키 위해현행 기별공고상 수출이 제한된 품목 가운데 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개방시켜 수출을 가속화시키고 수

입자유화 예시품목을 조기자유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81년까지의 예시품목가운데 수입제한 품목을 가능한한 개방한다는 원칙으로 수입확대를 위해 수입추천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고 수입자유화예시품목은 가급적 자유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82년 예시품목도 수입자유화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또 수입규제요인을 없애기 위해 실수요자수입 제도를 점차 철폐시키고 수입추천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절차간소화를 위해 수입요령을 공고키로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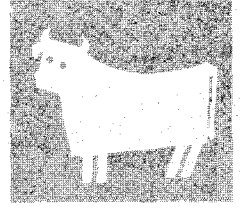
또한 앞으로의 수입자유화대상품목신청은 지난4월과 9월 2차에 걸쳐 수입자유화조치에 적용 되었던 대상품목신청기준에 준할 것이라고한다.

육류 2만 3천톤 수입 또는 국내 수매로 비축

— 농수산부 연말연시 집중방출 위해 —

농수산부는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등 육류 2만 3천톤을 조기에 구매 비축할 계획이다.

농수산부 당국에 따르면 가격 변동폭이 심한 농수산물을 전체 소요량의 1~2개 월분을 최소 비축량으로 확보하여 년중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12월중에 닭고기 2천톤, 돼지고기 5천톤, 쇠고기 1만6천톤을 각각 수입 또는 국내수매로 비축하여 연말연시 성수기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예년과 같은 가격 파동을 미리 막기로 했다.

육류 수입가격 상승 추세

- 호주산 쇠고기 톤당 1백달러 올라 -

수입육류가격이 오름세로 나타내고 있다. 최근 호주산 쇠고기(정육)수입가격이 C&F 1천1백달러선으로 년초보다 톤당 1백달러가 올랐고 돼지고기(미국)는 지육기준으로 톤당 2천6백달러로서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부당국은 국내 축산물 수요증대로 해외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어 앞으로 육류수입가격은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말 젖소 1만6천두 도입

- 연말까지 6천두 더 들어올 듯 -

농수산부 내년 2만1천두 계획

10월말현재 외국산젖소도입실적은 1만6천여마리로 밝혀졌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올해 젖소도입 계획두수는 2만5천두로 이중 10월말 현재 도착두수는 1만6천여마리로 연말까지 약6천마리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 3천마리는 검역사정등으로 내년으로 이월 도입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내년 젖소도입계획을

올해보다 4천마리를 줄여 2만1천 마리로 산정했는데 금년 수입추천분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실제로입두수는 2만4천마리로 늘어나게 된다.

버터·치즈 원료수입 검토

- 外産 사용으로 생산비 낮추게 -

농수산부는 버터및 치즈를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료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수산부 축산당국에 따르면 삼양식품 서울우유등에서 몇년전부터 버터및 치즈를 半製品 또는 국산원료로 가공생산하고 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부터 국내 원유수급동향을 감안하여 EEC지역 또는 호주로부터 값싼 원료를 도입하여 가공케 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반정도로 떨어뜨려 커미서리 또는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외제보다 싼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버터및 치즈의 국내 생산실적을 보면 버터는 △75년 2백34t △76년 2백34t △77년 5백31t이었으며 치즈는 △75년 20.9t △76년 25.5t △77년 1백t에 불과했다.

原乳 생산계획에 차질 빚을듯

젖소, 고깃소로 마구 처분

낙농가들 수지 안맞아

9월말현재 원유생산량은 24만6백78t으로 작년동기생산실적보다 24%가 증산

축산업계 동향

되었다.

농수산부당국에 의하면 올해 원유생산 계획량은 33만9천t으로 월평균 2만8천2백50t이 생산되어야 하는데도 9월말 현재 생산실적으로 보아 월평균 2만6천7백42t에 그쳐 연말까지 생산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부당국은 특히 지난 10월부터 낙농가들이 수지악화로 젖소를 고깃소로 처분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원유생산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9월말현재 유제품 생산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t)

△ 시 유 :	106,640
△ 가 공 유 :	53,487
△ 연 유 :	859.2
△ 분 유 :	15,205
△ 버 터 :	32.9
△ 아이스크림 :	14,610
△ 치즈 :	59.4
△ 발효 유 :	59,613

原乳價 40% 인상 요청

농수산부 “인건비등 올랐다”

농수산부는 낙농업자의 수지개선을 위해 원유가격을 현행 kg당 1백67원 에서 40.7% 인상한 2백35원으로 해줄것을 경제 기획원에 승인요청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처럼 원유값의 대폭인상을 요청한것은 지난 1년간 인건비

1백15% 조사료비 45%농가구입가격35% 등 원가가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낙농업자들은 원유가격을 현행수준에서 55%이상 올린 kg당2백60원~2백70원으로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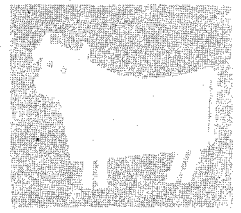
그러나 물가당국은 원유가격이 분유, 「아이스크림」, 제과등 관련제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농수산부가 요청한 것과 같은 대폭인상은 어려울것으로 보고있어 原乳價 인상은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농협, 축산단지 1백54곳 조성

— 양계, 양돈, 낙농 등 대상 —

농협중앙회는 내년에 1백3억6천만 원을 지원하여 양돈·낙농·육계·산란계·양토등 5개품목의 축산단지 1백54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협이 마련한 내년도축산단지 사업계획을 보면 △양돈단지는 1백23곳을 조성 1백호의 농가가 1개단지를 이루어 호당 10마리규모를 기르도록 하고 사료대와 새끼돼지구입비로 1만원을 지원하며 △낙농단지는 20곳을 조성, 단지당 2백호 농가를 참여시켜 농가당 10마리씩 사육토록 하고 전초구입비 3만5천원을 지원 △육계는 4개단지를 두어 단지마다 1백호의 농가를수용, 농가당 1천마리를 키우게 하고 △산란계단지도 4곳을조성, 단지당 1백호의 농가를 참여시켜 농가당 2천마리를 사육토록하며 △양토단지는 4곳을 조성하고 단지마다 25호의 농가를 두어 농가



당 40마리씩입식, 풀자원을 이용하여 모피와 고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이 축산단지 참여농가는 조합이 용의식이 투철하고 축사시설 및 자급사료 확보 등 사육여건을 갖춘 농가와 올해 도입것소를 입식한 농가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농수산부, 새마을 소득증대계획 마련

- 1천 5 백개 단협 84년까지 자립 -

농수산부는 새마을소득증대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84년까지 총 5천 5백7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1천 5백개 농협단위조합을 완전 자립화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알맞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할수 있는 5백개소를 선정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77년부터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이사업은 금년말까지 3백50개 단위 조합을 자립시키고 1백 1개지역을 선정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77년에 34억원 △78년에 1백70억원을 이미 투입했으며 △79년 3백34억 5천만원 △80년 9백76억원 △81년 1천 2백 60억원 △82년 1천 5백80억원 △84년 8백 6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84년까지 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5천 5백74억 5천만원중 정부지원 계획을 보면 △국고보조 7백 3억원 △中期용자 3천 1백32억 5천만원 이며 나머지 1천 7백39억원은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내년 2월부터 무허도계 단속 商街 限해 간이도계장 허가

도시건설계획법 시행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닭고기 유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내년 2月부터 서울지역에 대해 무허가로 닭을 잡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가에서 비위생적으로 닭을 잡는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계장에서 잡은 닭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식육점, 슈퍼마켓등에서 팔도록 하고 다만 공해문제가 없는 상가지역에 한해 간이도계장을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상가지역내에 간이도계장시설을 할수 있도록 도시건설계획법 시행규정을 일부개정한다 있다.

가축시장, 경매시장으로 전환방침

- 농수산부, 도축장시설 근대화 -

농수산부는 전국에 잔재해있는 가축시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가축의 유통구조개선으로 중간상인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을 경매시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가축시장은 5백40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시설근대화를 유도, 오는 91년까지 3백50개소로 줄이고 이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축산업계 동향

시장부터 단계적으로 경매제도를 실시 내년부터 81년까지 85개소, 82년부터 86년까지 1백85개소, 87년부터 91년까지 2백85개소를 가축경매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밖에도 축산물유통시설 근대화를 위해 5백15개소에 달하고있는 군소도축장을 년차적으로 정비하여 86년까지 2백50개소, 91년까지는 1백48개소로 줄일 방침이다.

농산물 종합식품점 3백 50곳 설치

가공식품등 메이커와 직거래
유통마진배제, 가격안정유도

농수산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년내 5백개소의 농산물직매장을 서울 일원에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농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을 취급 판매하는 농산물종합식품점을 년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농산물종합식품점 설치계획에 따르면 농축물종합직매점의 점포규모가 20평인데 비해 농산물종합식품점은 2백평규모의 대형점포로서 양곡, 육류, 채소등 농산물은 물론 농수산물을 원료로한 통조림, 젓갈류, 건어물,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식품을 종합적으로 취급, 판매하게 되는데 내년에 우선 주요지역을 선정,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년차적으로 확대, 오는 81년까지 3백50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농수산부는 농산물종합식품점은 중간유통마진을배제, 1차산품은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고 가공식품은 생산메이커와의 직거래로 일반시장보다 값싸게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매함으로써 전체 농산물과 식료품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인데 점포당 시설지원비로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쇠고기 部位別 포장판매 확대실시

— 시험판매결과 반응 좋아 —

농수산부는 내년부터 육류의 규격화등 급별 판매제도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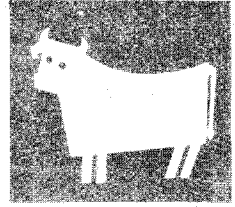
농수산부축산당국에 따르면 육류의 유통 및 판매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축산진흥회에서 지난 10월 2일부터 서울시내 3개 축산물직매장(신촌, 용두, 새로나 백화점)을 통해 쇠고기를 부위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 포장, 시험판매한 결과 반응이 좋아 커트미트기 등을 수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쇠고기의 부위별등급판매제도는 △등급(안심, 등심·채끝) △상등(우둔·설도·앞다리) △보통(양지·목덜미·사태) △분쇄육△갈비 등 5등급으로써 냉동 지육을 콩기로 선동한후 부위별로 잘라 6백8단위로, 진공포장한 것이다.

농산물 저장시설에 152억원 투입

— 농수산부, 產地 냉동냉장시설 확충 —

농수산부는 농수산물 저장시설확충으로



수매비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81년까지 냉동, 냉장시설자금 1백52억 8천 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산지 농산물저장시설확충계획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냉동시설을 3천 3백51T/D에서 81년에는 4천 5백90T/D로 냉장시설은 16만 9천t에서 19만 7천t으로 각각 늘리기로 하고 △ 79년에 47억 7천만원 △80년에 56억 9천 4백만원 △81년에 48억 1천 8백만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별 투융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냉동, 냉장, 시설			계
	79	80	81	
투 자	1,700	2,918	3,373	7,991
자 담	729	1,251	1,445	3,425
차 관	2,341	1,527	-	3,868
계	4,770	5,696	4,818	15,284

우리나라 육류소비 크게 증가

— 81년 1인당 소비량을 14.4kg으로 늘려잡아 —

농수산부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육류소비 수요에 맞춰 오는 81년의 국민 1인당 육류소비 예정량을 당초 9kg(총35만 9천 8백톤)에서 14.4kg(55만 7천 4백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소비수요의 충당을 위해 내년부터 81년까지 매년 4만톤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돼지고기 수출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자급기반이 달리는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증가율을 18%와 16.3%로 각각 늘려 잡았다.

내년에 사료검사소 설치

— 축산물, 동물약품검사 일원화 —

농수산부는 축산진흥장기계획에 따라 사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에 사료검사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축산물생산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증산과 아울러 품질향상이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사료검사소를 설치 운영토록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관리강화와 가축방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산물검사소를 별도로기로 설치하여 육류는 물론 육제품, 동물약품 검사업무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이밖에도 가축기술보급 확대를 위해 축산기술연수원을 설치하여 축산기능사를 양성하며 노동청당국과 협의하여 축산기능사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급증하는 축산물 수요에 비하여 장비와 기구 인원등은 10여년 전과 별차이가 없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다.

일본 양계산업전 개최

— 79. 3. 28 동경유통센터 대전시장에서 —

사단법인 일본양계협회(東京都 千代田區 神田駿河台1-2)는 제10회 양계산업전을 내년 3월28일부터 30일까지 3

축산업계 동향

일간 東京太田區平和島의 동경유통센터 대전시장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이전시회에는 양계생산및, 유통자재등기계, 기구가 전시되고 양계강연회도 개최된다.

이번 기회에 많은 양계인이 참석하여 양계기계화에 대한 전문을 넓힐 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 닭고기 소비량 계속 늘어

— 작년에 비해 5% 증가 —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9월 한달동안 닭고기 소비량이 4천 6백56만 9천수로 전년 동월에 비해 3%가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생체중량으로 보면 9천 6백 2만 9천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5%가 늘어난 것이다.

일본 食肉소비 크게 늘어

— 豚 146만두, 肉·和牛 14만 1천두나 —

일본은 9월 한달간 육돈 1백46만 8천두, 육우 10만 3천두, 화우 3만 8천두를 출하 소비시켰다.

농수산성이 밝힌 식육유통통계를 보면 이같은 소비량은 돈육이 전년동월비 9% 육우가 14% 화우가 9%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지육경락가격은 동경도매시장의 경우 돈육 1.10kg당 7백 6엔(전년동월비 71엔인하) 화우(중품)kg당 1천 6백35엔(동 66엔인상) 거세화우(중품) kg당 1천 6백53엔(동 61엔인상)이었다.

日, 9월중 原乳 50만 8천톤 생산

— 작년 동월에 비해 8.7%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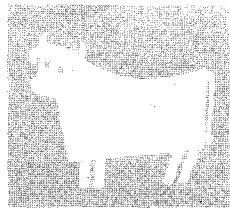
일본의 9월중 원유생산량은 50만 8천 2백30t으로 전년동월비 8.7%가 늘어났다.

이중 시유,가공유등 飲用유가공에 33만 4천 4백28t을 사용(전년동기비 6.5%증)했고, 분유, 치즈·버터등 유제품가공에 16만 3천 4백90t을 사용(동13.6%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수산성이 조사집제한 통계에 따르면 특히 유제품의 경우 전지분유를 제외하고 유제품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버터는 전년동월에 비해 17.9%나 대폭 증가하고 있다.

9월중 유제품의 생산량및 재고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재고량 단위 : t)

△ 가 당 연 유	2,152(1,602)
△ 무 당 연 유	180(83)
△ 전 지 분 유	1,331(1,367)
△ 조 제 분 유	5,451(3,067)
△ 가 당 분 유	48(2)
△ 버 터	4,647(2,628)
△ 치즈	6,526(1,068)
△ 탈지가당연분	1,147(318)
△ 탈 지 분 유	9,478(3,363)
△ 아이스크림MP	231(129)
△ 아이스크림	9(3)



태국, 도계시설 확장

— 일당 8만수 처리규모로 —

태국은 금년 연말까지 하루에 8만수의 브로일러를 가공할 수 있는 도계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브로일러의 50%는 수출할 것이라 한다. 최근 몇년동안 15-20%의 브로일러산업 성장율을 보여온 태국은 지난 1977년에 1억 1,000만수의 브로일러를 생산했으며 이중 3%를 수출한 바 있다.

태국의 브로일러생산체계를 보면 구라파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료제조업자가 자금과 경영기술을 제공하고 수입된 종계로부터 생산된 병아리를 계약에 의해 공급해 주며 육계사육자는 건물 및 시설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브로일러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조건에 대한 위험부담은 사료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체계를 가진 이나라의 브로일러 생산효율을 보면 1.8kg짜리 브로일러생산에 소요되는 사육기간은 56일이며 사료요구율은 생체 1kg당 2.1kg 그리고 폐사율은 평균 4%이다.

한편 브로일러 생체 1kg당 생산비는 한화로 399원 60전이며 이중 사료비가 64.4%인 257원 34전이라 한다. 그런데 병아리 가격은 마리당 30원 정도며 브로일러사육자는 마리당 12원 13전의 보수와 방역치료비 및 기타비용으로 12원 15전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민간제약회사도 추백리 진단액 제조

— 녹십자수의약품, 검정끝난후 시판예정 —

백신메이커인 녹십자수의약품(주)은 (대표 허정섭) 농수산부로 부터 추백리진단액 제조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중인데 가축위생연구소의 검정이 끝나는데로 곧 시판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백리진단액은 정부기관에서만 제조하여 왔으며 한때 풀키현상까지 있었다.

업계 동정

○미국 태뎡농장의 사장 TATUM 씨와 부사장 겸 국제판매담당인 CROY 씨가 칠성농장의 종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8일 내한하여 11월 11일 이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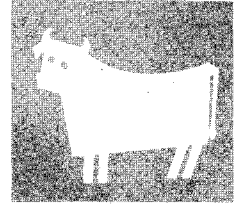
○지난 10월 30일 출국한 일본 사료업계 시찰단(단장 홍성사료 황석규 상무)이 일본 및 대만 사료업계의 제조시설과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11월 12일 KAL 항공기 편으로 전원 무사히 귀국했다.

○동물 검역소 군산지소 (소장: 김재룡) 인천지소 관내였던 충남과 전남지역 본소관내였던 전북지역의 동물검역을 맡게 될 국립동물검역소군산지소가 11월 8일 10시 현판식을 가지고 개소.

○덕계계우회: 11월 6일 12시 사무실(경남 양산군 웅상면 덕계리) 개소식을 가졌다. 전화는 웅상 256

○서울미원(대표: 김 병기): 영등포 공장의 사료생산 능력을 일산 2백톤에서 3

축산업계 동향



백톤으로 증설할 계획, 11월말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본격가동에 들어갈 예정

○삼일농장(대표: 이보연): 본사를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90번지(전화 386-7776, 벽제 43번)로 이전.

○은성산업(대표: 현순구): 국제빌딩 8층(서울 중구 필동1가 39의1)으로 사무실을 이전, 전화는 267-2063, 2897, 2967, 사료부직통은 267-0571

○대성미생물 연구소(대표: 조성룡): 여성단 체협의회회관 3층(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으로 사무실을 이전 전화는 종전과 동일

○협신가축약품(대표: 임치환): 경기도 이천에서 개업, 주소는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2, 전화는 2607

○동양화학(대표: 이수영): 교환 전화가 778-7211~8으로 변경, 인산칼슘사업부 직통전화는 28-9769로 종전과 동일

○오진양행(대표: 정진국): 전화증설 778-5344

인사

○농촌진흥청: 유일용(전 가축위생연구소)씨가 연구 조정과로 영전

○삼일농장(대표: 이보연): 김영호(전 신촌 부화장전무)씨를 기획실장으로 기용

○대한제당 사료부: 윤희석(전 부국사료 서울농대졸)씨를 영업부에 특채

○제일제당 사료부 신입사원 공채

강유성(前 동립산업, 서울 농대졸)
신쾌승(前 자영, 서울농대졸)
송철강(前 부국사료, 서울농대졸)
진창근(前 대마홍농, 서울농대졸)
정약희(前 연암축산, 건대축대졸)
양수문(前 호산나부화장, 건대 축대졸)
박윤모(前 국제약품, 건대축대졸)
왕우영(前 보령제약, 동아농대졸)
이성웅(前 자영, 동아농대졸)

○서부배합사료(대표: 변종익): 송병국(건대 축산경영학과), 강안중(중앙 농대)씨를 영업부에 특채

○과학사료(대표: 신정재): 광수곤(건대 축산과)씨를 영업부에 특채

○동순 부화장(대표: 조순희): 김두홍(건대축대졸)씨를 특채

○이화약품: 김종문(전 과학사료)씨를 영업부차장으로 특채

○세원사료: 생산과장 이정기씨가 생산부차장으로, 영업과장 박건영씨가 영업부차장으로, 경리과장 남기원씨가 경리 부차장으로, 임세빈씨가 영업부 과장대리로 승진.

○다나화학 공업사: 김광우(전 상천농원, 건대낙농과졸)씨를 영업과장으로 특채

○축산 진흥회: 鄭晞煥씨를 무역부장으로 기용